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26. 10. 13.(화)

글로벌 빅테크의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, 연기 언급은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발 신규 화석연료 발전기 건설 현상을 언급한 것입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10.13. 오마이뉴스 「반도체 앞 '시한폭탄'... 귀를 의심케 한 장관의 말」 제하 기사에서,

* 부제 : [반도체 특별과외] '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탄소중립 포기·연기했다'는 김정관 장관 발언, 사실과 달라

- 산업부 국정감사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“탄소중립 이슈에 대해 처음에 제기했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하면 포기, 연기하면 연기하는 상황이다”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,
- “반도체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기한 사례는 없으며, 오히려 목표를 앞당기거나 협력사에 이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“사실상 탄소중립 포기, 연기” 발언은 글로벌 빅테크가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, 연기했다는 것이 아니라, AI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으로 목표달성이 까다로워져서 신규 화석연료 발전기를 건설하고 있는 현상을 강조하여 언급한 것입니다.

* '26.상반기 미국에서 개발·계획중 가스화력발전소 378GW중 절반인 179GW가 빅테크 데이터센터와 직접연계(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집계기준, '26.8. 오일프라이스 보도)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	책임자	과 장 안진호 (044-203-41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창연 (zoazoa2002@korea.kr)

